

숫자로 보는 미국경제 현주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숫자로 보는 미국경제 / 3

- 3 가. 세계경제 속의 미국경제 위상
- 4 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미국경제

II. 숫자로 보는 미국 교역동향 / 13

- 13 가. 교역대상국으로서의 미국경제 위상
- 15 나. 미국의 산업별 교역구조
- 17 다. 미국의 국별·품목별 수입구조
- 22 라. 미국의 교역추이

III. 숫자로 보는 미국 투자동향 / 24

- 24 가. 해외직접투자 개관
- 24 나.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 28 다.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요 약

한미 양국은 지난 6월30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숫자(통계)를 이용해서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고 세계 교역과 투자부문에서의 미국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미국은 세계최대 시장이자 국제표준 및 인증규격 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제 규범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이며 세계 4.5%의 인구로 전세계 GDP의 28%를 생산하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하면서 첨단과학 및 하이테크 분야 경쟁력과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전세계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달하며, 이러한 비중은 독일 69%, 일본 70%, 한국 62%를 크게 앞서고 있고, 미국의 상업서비스(Commercial Service) 수출은 한국의 지난해 총수출 3,25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높은 유연성을 가진 미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15%에 달하며, 연평균 노동시간은 독일, 영국보다 10% 정도 많다. 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70%로 매우 높은 점으로, 일본, 독일,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수입시장으로서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총수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독일 등 다른 선진국보다 높고, 농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미국은 독일에 이어 제2의 수출대국으로서, 총수출에서 농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다. 특히 총수출 대비 농업 비중이 6.6%로 일본(0.9%), 한국(1.6%), 중국(3.4%), 영국(3.8%)의 2~7배에 달한다. 미국 농업의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은 캐나다로 2006년 미국 총수입의 16.3%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중국이 캐나다를 제치고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무역적자의 40%가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포함할 경우,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이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세계 제1의 해외직접투자국(FDI Outward)인 동시에 세계 제1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FDI Inward)이다. 2005년 기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2조700억 달러에 달하며,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연평균 1,200억 달러를 상회한다. 지역별로는 유럽(51.2%), 아시아·태평양(18.2%), 중남미(17.1%) 순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크며, 국별로는 캐나다와 영국이 직접투자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미국기업은 총자산 8조 7,570억 달러, 연간 순투자소득 2,278억 달러, 연간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익 360억 달러의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누계액은 1조 6,353억 달러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 다소 정체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영국(2,825억 달러)과 일본(1,903억 달러)으로부터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는데, 영국은 주로 금융분야에서, 일본은 자동차산업과 부동산분야에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본문 내용의 각종 국가별 순위 비교는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7(IMD) 수록국가 55개국을 기준으로 했으며, 대상 국가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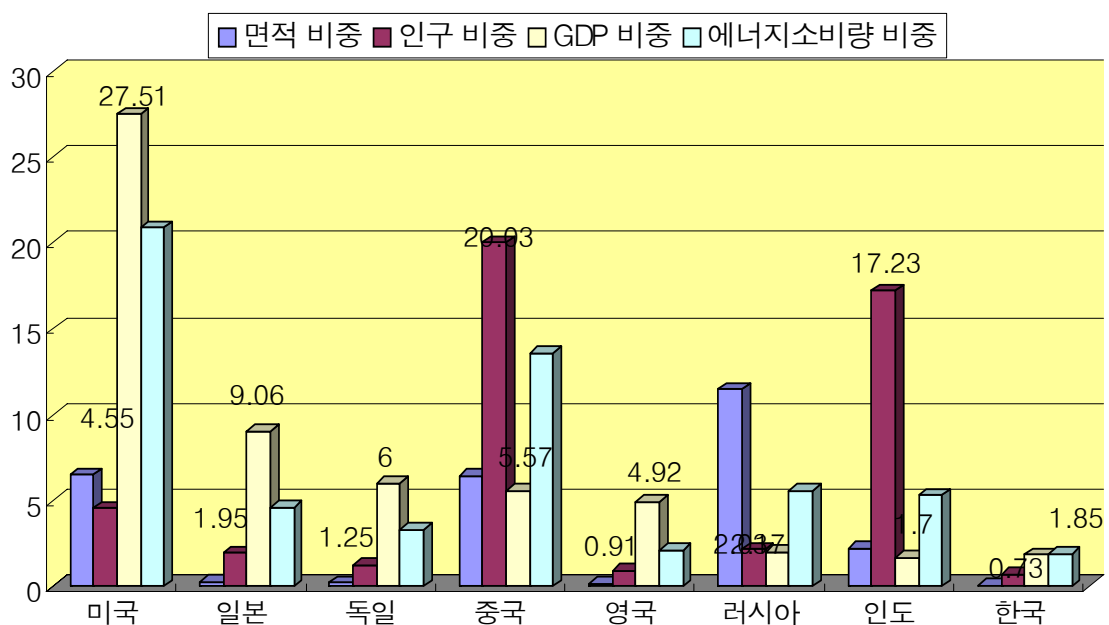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요르단,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I. 숫자로 보는 미국경제

가. 세계경제 속의 미국경제 위상

- 미국은 세계 최대시장이자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 국제표준 및 인증규격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제 규범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임.
- 세계 4.5%의 인구(2억 9,900만명)로 전세계 GDP의 28%를 생산하는 세계경제의 성장축
-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 15조 달러('06년 기준) 중 14.8%(2조 2,226억 달러)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시장
 - 상품 수출은 독일에 이은 2위 수출대국으로 전세계 상품 수출액 12조 620억 달러의 8.6% 점유
-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액 10조 2,197억 달러 중 20%(2조 700억 달러)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자본수출 및 직접투자국

〈주요국별 인구, 면적, GDP, 에너지소비량(2006)〉



〈세계 주요국별 경제지표〉

구분	단위	총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한국
면적	천 km ²	148,647	9,632	378	357	9,600	244	17,098	3,287	99
	비중	100.0	6.48	0.25	0.24	6.45	0.16	11.50	2.21	0.06
	순위	-	3	21	22	4	30	1	7	35
인구	백만명	6,560	299	128	82	1,314	60	143	1,130	48
	비중	100.0	4.55	1.95	1.25	20.03	0.91	2.17	17.23	0.73
	순위	-	3	6	10	1	14	6	2	16
GDP	US\$ 십억	48,144	13,245	4,363	2,889	2,682	2,372	979	820	891
	비중	100	27.51	9.06	6.00	5.57	4.92	2.03	1.70	1.85
	순위	-	1	2	3	4	5	11	14	12
1인당GDP	US\$		44,246	34,131	35,102	2,040	39,266	6,856	726	18,440
	순위		7	18	17	52	11	39	55	27
1인당GDP (PPP)	US\$		42,857	31,943	30,315	7,423	33,994	11,597	3,652	23,129
	순위	-	2	17	20	49	10	39	55	28
총에너지 소비량	백만 MTOE	7,644	1,601	354	252	1,038	163	425	403	144
	비중	100	20.9	4.6	3.3	13.6	2.1	5.6	5.3	1.9
	순위	-	1	5	6	2	10	3	4	11

주 : MTOE는 Millions of Tonnes Oil Equivalent의 약자로 원유기준 100만톤에 해당하는 양임.

자료 : Main Economic Indicator March 2007(OECD), UN Demographic Database, IMF, US CIA, WorldAtlas.com, US Census, UNEP

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미국경제

□ 세계경제는 통신수단 발달, 공산권 붕괴, 범세계적 규제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화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과 미국의 세계경제 지배력을 높이고 있음.

○ 세계 GDP 대비 교역비중이 지난 55년간 4배 확대

- 8.0%('50) → 19.7%('90) → 33.0%('05)

○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Outward) 누계액이 지난 15년간 6배 확대

- 1조 7,893억 달러('90) → 5조 8,029억 달러('00) → 10조 2,197억 달러('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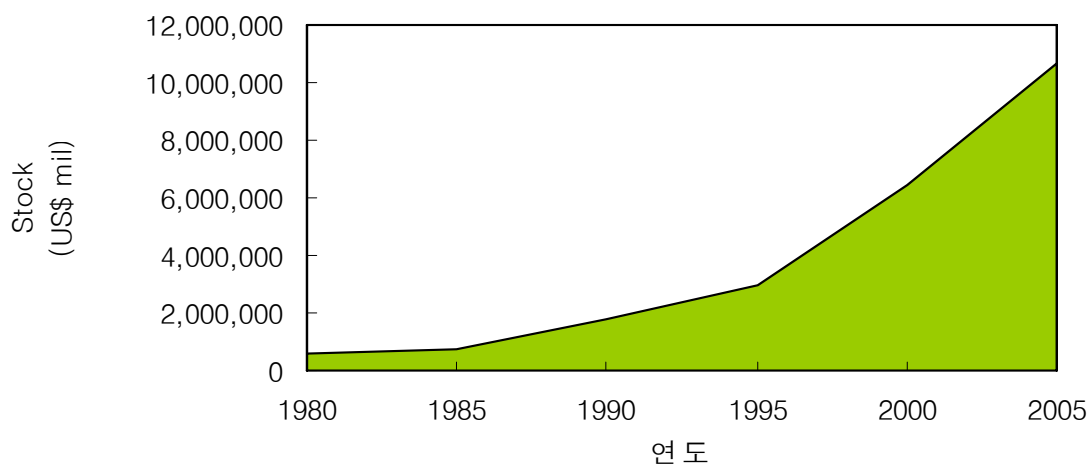
-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유치(FDI Inward) 누계액 또한 지난 15년간 6배 확대
- 1조 7,911억 달러('90) → 6조 4,714억 달러('00) → 10조 6,719억 달러('05)

〈세계 GDP 대비 교역비중, FDI Outward, Inward 연도별 추이〉

구분		단위	1950	1973	1990	2000	2005
세계 GDP 대비 교역비중		%	8.0	14.9	19.7	29.5	33.0
FDI Outward	Flow	U\$ 백만	-	21,198	201,614	1,409,568	916,277
	Stock	U\$ 백만	-	-	1,789,303	5,802,933	10,219,730
FDI Inward	Flow	U\$ 백만	-	-	229,877	1,244,465	778,725
	Stock	U\$ 백만	-	-	1,791,092	6,471,435	10,671,880

자료 : World Trade and Output(WTO), The World Economy(Fredrick P. Stutz著), UNCTAD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누계액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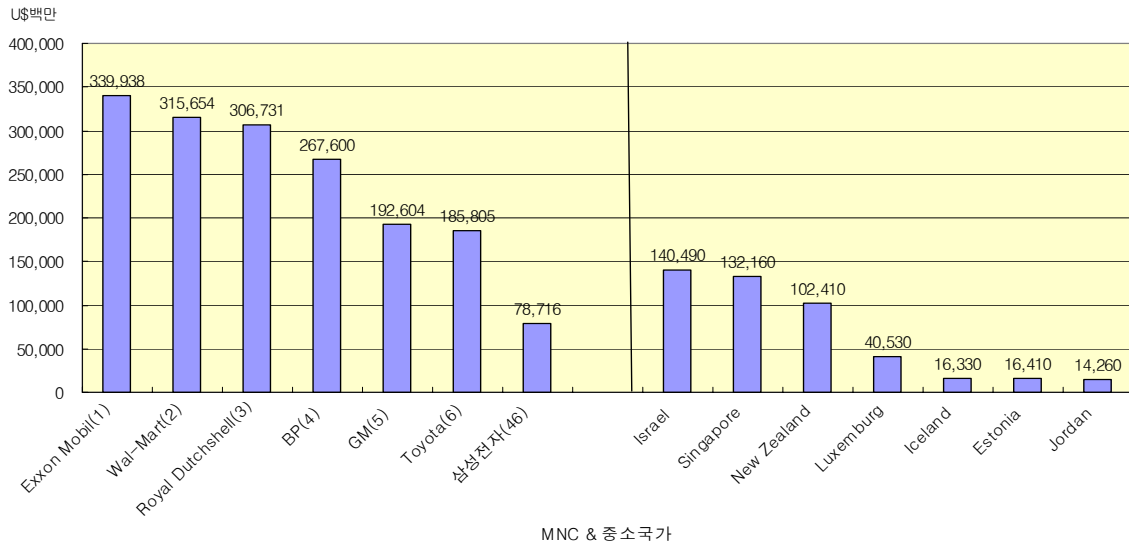


- 다국적기업은 전세계 민간기업 총자산의 40%를 보유하고, 1억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전세계 교역의 50% 이상을 주도함('06).

- 매출액 순위 2위 다국적기업인 Wal-Mart 매출액이 뉴질랜드 GDP보다 3배 이상 큼.

- War-Mart 매출액 3,156억 달러, 뉴질랜드 GDP 1,024억 달러

〈주요 다국적기업 매출액과 중소국가 GDP 비교〉



주 : 다국적기업명 뒤의 괄호()는 2006년 매출액 순위

자료 : Fortune Global 500, Main Economic Indicator 2007(OECD)

- 다국적기업이 창출하는 1억명의 직접고용 인력은 선진국 고용인구의 4%, 개발도상국 고용인구의 12%를 차지함.

□ 미국은 첨단과학 및 하이테크 분야 경쟁력과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전세계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음.

-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수는 영국의 4배, 러시아의 20배에 달하며, 하이테크 수출액은 일본의 2배, 영국의 3배에 달함.

〈주요국 기술경쟁력 비교(2006)〉

구분	단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한국
노벨상 수상자	명	230	8	29	2	55	12	1	0
	순위	1	8	3	16	2	4	19	-
해외등록 특허('04)	건수	149,125	56,592	153,893	771	34,880	486	867	3,142
	순위	2	3	1	25	5	30	23	20
하이테크 수출액	US\$ 백만	233,079	122,679	137,547	214,245	82,840	3,690	2,840	83,527
	순위	1	4	3	2	8	31	34	7
과학논문('03)	건수	211,233	60,067	44,305	29,186	48,288	15,782	12,774	13,746
	순위	1	2	4	6	3	11	14	12

자료 : The Nobel Foundation,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Updated : May 2007), NSF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April 2007)

-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미국기업이 170개사(34%)를 차지하며, 특히 Big 5 중 3개사가 미국기업
 - 엑손모빌(1, 미국), 월마트(2, 미국), 로얄 더치셸(3, 네덜란드), BP(4, 영국), GM(5, 미국)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국별 분포〉

구분	단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한국
글로벌 500대 기업	기업 수	170	70	35	20	38	5	6	12

자료 : Fortune Global 500

〈미국 주요 다국적기업 매출액과 해외매출 비중(2005)〉

회사명	매출액(U\$ 십억)	해외매출 비중(%)
Exxon Mobil	298.0	70
Conoco Phillips	136.9	30
Dow Chemical	40.2	63
United Technologies	37.4	51
Caterpillar	30.2	53
Halliburton	20.5	78
Manpower	14.9	86
U.S. Steel	14.1	20
Texas Instruments	12.6	84
Apple Computer	8.3	41
Qualcomm	4.9	79

자료 : Information Week

- 서비스산업이 미국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업은 영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세계최대의 기업자금 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함.
- 미국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77%로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함.
 - 미국 77%, 독일 69%, 일본 70%, 한국 62%, 중국 40%

〈주요국 GDP 대비 산업별 비중(2006)〉

구분	단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인도	러시아	한국
농업	%	1.0	1.6	1.0	11.8	1.0	20.5	6.0	2.9
	순위	49	44	49	5	49	1	16	29
제조업	%	22.0	28.6	26.0	48.7	26.0	24.4	38.0	35.2
	순위	51	32	35	2	35	44	10	13
서비스업	%	77.0	69.8	69.2	39.5	73.0	55.1	56.0	61.9
	순위	3	21	22	55	12	47	46	37

주 : 제조업은 광의의 제조업(Industry) 개념임.

자료 :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7(IMD)

- 미국의 전체 고용인구 중 79%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며, Commercial Service(CS) 수출액은 한국 총수출액(3,255억 달러) 상회
- 미국 CS 수출액 3,874억 달러, 일본 2,231억 달러, 독일 1,214억 달러('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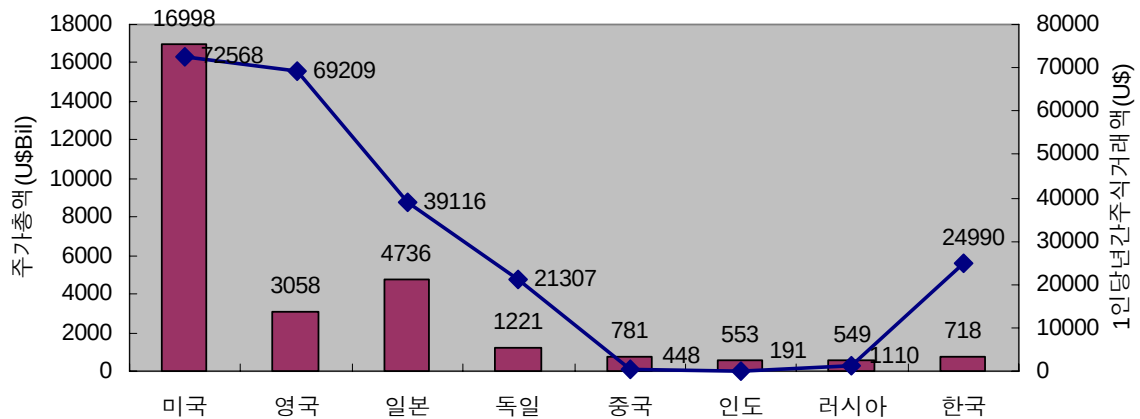
〈주요국 서비스산업 관련 지표〉

구분	단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서비스산업 고용인구 비중	%	78.6	76.5	68.8	71.9	31.4	25.7	63.7	65.2
	순위	2	6	21	15	53	54	29	25
Commercial Service 수출	US\$ 십억	387.4	223.1	121.4	164.2	86.5	72.8	29.8	50.7
	순위	1	2	4	3	8	10	25	16
Commercial Service 수지	US\$ 십억	80.7	53.7	-21.4	-50.3	-13.2	3.3	-15.1	-8.8
	순위	1	2	54	55	50	18	51	47

자료 :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7(IMD)

- 미국의 주가총액은 16조 9,980억 달러로 일본의 3배, 한국의 23배를 상회하며, 1인당 연간 주식거래액 또한 일본의 2배, 한국의 3배에 달함('06).

〈주요국 주가총액 및 1인당 연간 주식거래액(2006)〉



자료 : World Competitiveness Online(IMD, Updated : May 2007)

- 미국은 영국과 함께 전 세계 은행, 보험, Investment Bank 시장을 주도함.

〈세계 10대 은행(Commercial & Savings)〉

순위	회사명	세계기업 순위	매출액(US\$ 백만)	국가
1	Citigroup	14	131,045	미국
2	Fortis	18	112,351	벨기에
3	Credit Agricole	19	110,765	프랑스
4	HSBC Holdings	26	93,494	영국
5	BNP Paribas	34	85,687	프랑스
6	UBS	36	84,708	스위스
7	Bank of America Corp.	37	83,980	미국
8	J.P. Morgan Chase & Co.	45	79,902	미국
9	Deutsche Bank	48	76,228	독일
10	HBOs	49	75,799	영국

주 : 세계기업 순위는 타업종 포함 2006년도 매출액 기준 세계기업 순위

자료 : Fortune Global 500

〈세계 5대 증권사, Investment Bank〉

순위	회사명	세계기업 순위	매출액(US\$ 백만)	국가
1	Morgan Stanley	98	52,498	미국
2	Merrill Lynch	110	47,783	미국
3	Goldman Sachs Group	124	43,391	미국
4	Lehman Brothers	176	32,420	미국
5	Nomura Holdings	427	15,835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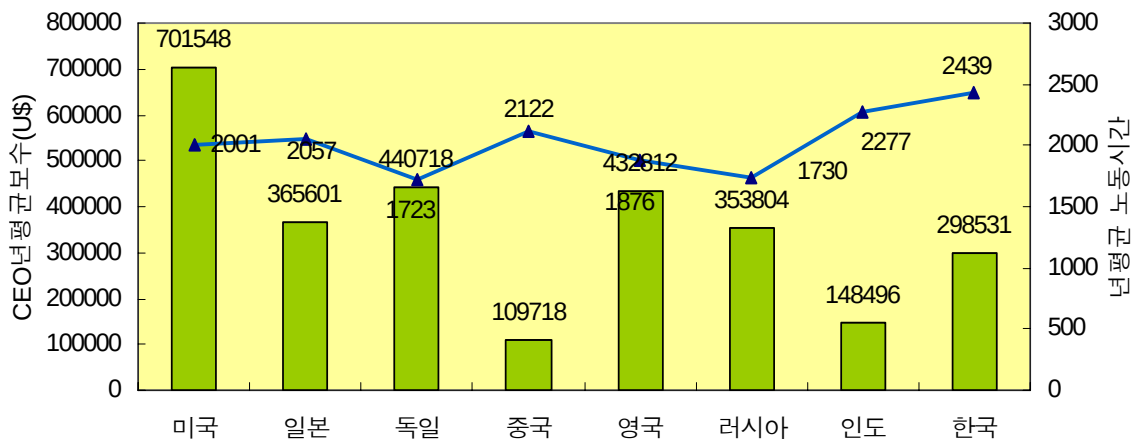
〈세계 10대 생명·건강보험사(Life and Health Insurance)〉

순위	회사명	세계기업 순위	매출액(US\$ 백만)	국가
1	ING Group	13	138,235	네덜란드
2	AXA	15	129,839	프랑스
3	Assicurazioni Generali	21	101,404	스페인
4	Aviva	28	92,579	영국
5	Prudential	52	74,745	미국
6	Legal & General Group	85	56,385	영국
7	CNP Assurances	109	48,475	영국
8	MetLife	112	46,983	미국
9	Aegon	149	37,694	네덜란드
10	Prudential Financial	182	31,708	미국

□ 높은 유연성을 가진 미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총 고용인력의 15%를 차지하며, CEO 연봉은 일본의 2배, 연평균 노동시간은 독일, 영국보다 10% 높음.

○ 미국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15%로 이는 일본 0.3%, 독일 9.4%, 한국 1.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주요국 CEO 연평균 보수 및 연간 근로시간(2006)〉



자료 :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6(ILO), Euromonitor International 2007

〈주요국 노동·임금관련 지표(2006)〉

구분	단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한국
외국인노동자 비중('04)	%	14.8	0.3	9.4	N.A.	4.9	0.3	N.A.	1.8
CEO 연봉	U\$	701,548	365,601	440,718	109,718	432,812	353,804	148,496	298,531
	순위	1	15	5	46	6	16	28	25
연평균 노동시간	시간	2,001	2,057	1,723	2,122	1,876	1,730	2,277	2,439
	순위	21	18	52	16	26	51	4	1
시간당임금 (제조업)	U\$	23.65	20.58	33.26	0.96	25.95	0.88	0.66	14.58
	순위	38	34	50	7	42	5	3	32
노동증가율	%	1.44	0.11	3.43	1.37	0.50	0.39	2.54	0.99
	순위	25	50	8	26	43	47	15	33

자료 :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6(ILO), Euromonitor International 2007

□ 미국은 GDP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고도 대중 소비사회로서 계층간 높은 소득격차와 이에 따른 차별화된 시장구조를 갖고 있음.

○ 미국은 소비지출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독일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며, 1인당 유통 신용카드 수도 7개로 일본(4개), 독일(1개)보다 월등히 높음.

- GDP대비 소비지출 비중 : 미국 70%, 일본 55.4%, 독일 58.5%, 한국 53.5%

- 1인당 소비지출 : 미국 30,971 달러, 일본 18,993 달러, 독일 20,538 달러

○ 반면 선진국 중 GDP 대비 저축률이 가장 낮은 수준임.

- 미국 14.2%, 영국 13.6%, 일본 26.7%, 한국 31.7%

○ 연간 가계소득 75,000 달러를 상회하는 상위층이 총인구의 28%를 차지하며, Veblen류의 차별화 소비, 고급 브랜드 소비를 주도함.

- 반면 연간 가계소득 35,000달러 이하의 서민/빈민층이 총인구의 38% 차지

〈주요국 소비지출 비중, 유통 신용카드 수(2006)〉

구분	단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한국
GDP 대비	%	70.0	55.4	58.5	38.6	64.2	48.9	62.7	53.5
소비지출 비중	순위	3	35	26	55	12	44	13	40
1인당 소비지출	U\$	30,971	18,993	20,538	661	25,197	3,352	423	9,871
	순위	3	18	14	54	6	43	55	28
GDP 대비	%	14.2	26.7	23.0	47.3	13.6	33.4	28.3	31.7
총저축률	순위	50	21	33	2	52	9	32	13
1인당 유통	개	7.52	4.09	1.45	0.92	3.80	0.56	0.08	4.45
신용카드 수	순위	1	7	22	30	8	42	48	6

자료 : UN Demographic Database, WTO Statistics databas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6(IMF), Global Market Information Database, Euromonitor International 2007

II. 숫자로 보는 미국 교역동향

가. 교역상대국으로서의 미국경제 위상

□ 미국은 세계 제1의 수입시장이자 독일에 이은 세계 제2의 상품 수출대국으로 최근 3년간 수입증가율 지속 감소중

○ 미국은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의 14.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시장

- 미국 2조 2,226억 달러, 독일 1조 1,227억 달러, 중국 8,913억 달러

- 연평균 수입증가율 감소세 : 16.9%('04) → 13.1%('05) → 10.4%('06)

〈주요국 수입시장 규모(2006)〉

구분	단위	총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한국
상품/서비스 수입액	US\$ 십억	14,999	2,223	720	1,123	891	770	209	244	379
	비중(%)	100.0	14.81	4.80	7.49	5.94	5.14	1.39	1.63	2.52
	순위	-	1	5	2	3	4	38	15	12
GDP 대비 수입 비중	%	31.2	16.81	16.51	38.93	33.24	32.47	21.32	29.73	42.52
	순위	-	3	2	24	18	17	6	14	28

자료 : WTO Statistics database, Main Economic Indicators March 2007(OECD), IEA

〈주요국 수입증가율 동향(2000~2006)〉

(단위 : %)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도	9.99	-0.33	10.13	26.88	38.31	39.25	29.14
러시아	15.13	20.85	13.91	22.36	26.80	25.93	27.47
중국	32.69	8.29	20.76	37.03	35.33	17.43	19.94
한국	32.02	-10.27	8.46	16.20	25.18	16.49	18.73
독일	3.19	-1.00	1.12	22.32	17.29	7.57	14.99
영국	5.41	-2.34	5.38	13.54	19.60	9.24	14.49
일본	16.93	-7.77	-2.82	10.95	19.20	10.70	11.24
미국	18.04	-5.69	1.88	8.21	16.92	13.05	10.42

자료 : WTO Statistic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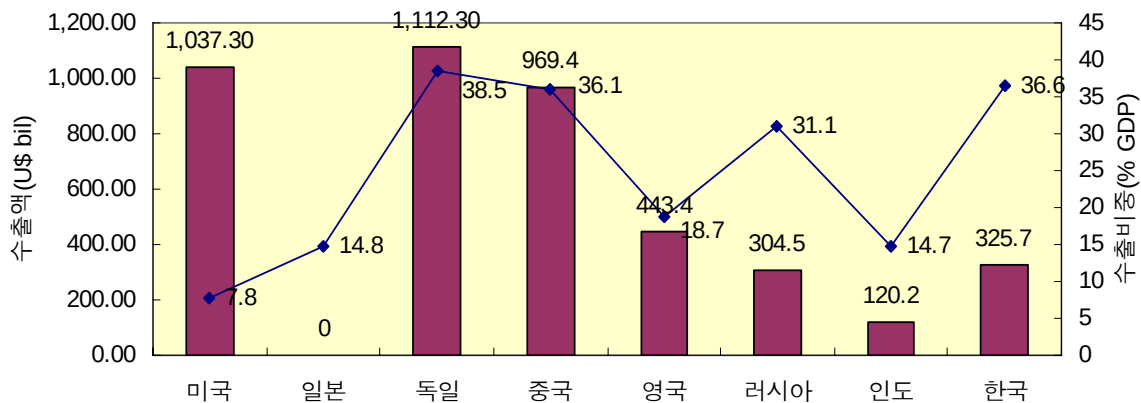
- 미국의 상품수출액은 1조 373억 달러로 독일(1조1,123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의 상품수출국임.
- 중국은 전통적인 수출대국인 일본을 제치고 9,694억 달러(8.03%) 수출을 기록하여 세계 3위 수출대국으로 부상
- 한국은 3,255억 달러로 전세계 수출의 2.7%를 점유하는 11대 수출국

〈주요국 수출실적 비교(2006)〉

구분	단위	전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한국
상품 수출액	U\$ 십억	12,062	1,037	647	1,112	969	443	305	120	326
	비중(%)	100.0	8.60	5.37	9.2	8.03	3.68	2.52	1.00	2.70
	순위	-	2	4	1	3	7	13	26	11
GDP 대비 수출 비중	%	25.1	7.8	14.8	38.5	36.1	18.7	31.1	14.7	36.6
	순위	-	54	41	21	27	47	33	52	23

자료 : WTO Statistics database, Main Economic Indicators March 2007(OECD), IEA

〈주요국 상품수출액 및 GDP 대비 수출비중〉



- 미국의 무역의존도는 13.8%로 독일과 한국의 1/3 수준이지만, 미국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무역의존도 증가 추이 : 4.6%('60) → 9.9%('90) → 13.8%('06)

〈주요국 무역의존도 비교(2006)〉

구분	단위	전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한국
무역의존도	%		13.8	17.1	41.6	36.3	30.3	27.7	26.6	42.4
	순위	-	54	53	29	34	31	45	48	26

주 : 동자료에서 활용한 무역의존도는 (수입 + 수출)/(2 X GDP)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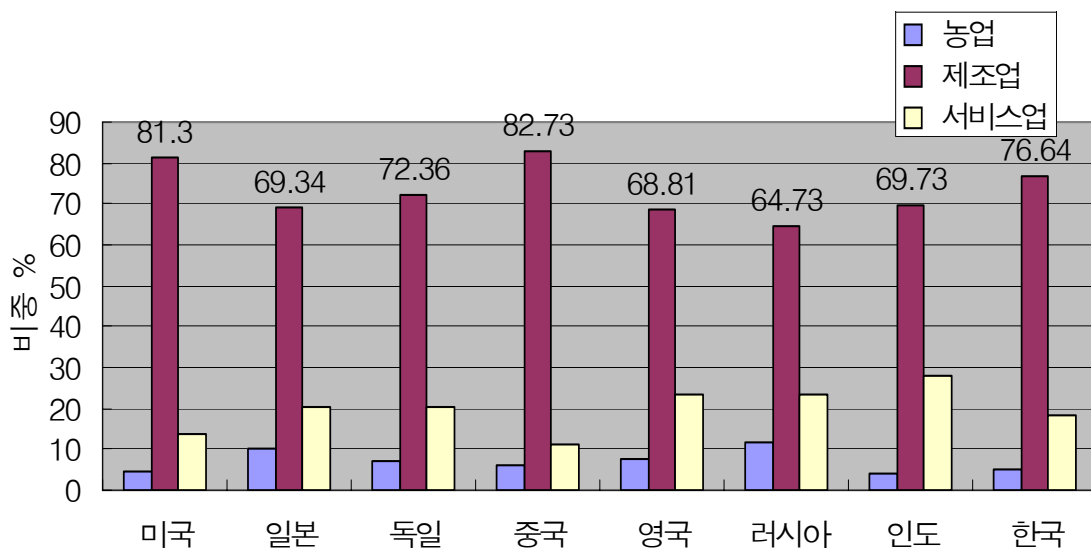
자료 : WTO Statistics database, Main Economic Indicators March 2007(OECD), IEA

나. 미국의 산업별 교역구조

□ 미국은 총수입 중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 높고, 농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총수입 중 제조업 비중은 미국(81.3%)이 일본(69.3%), 독일(72.4%), 러시아(64.7%)보다 높지만, 농업분야에서는 미국(4.8%)이 일본(10.2%), 독일(7.1%), 중국(6.1%)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주요국 산업별 총수입 대비 수입비중(2006)〉



자료 : WTO Statistics database

〈주요국 산업별 총수입 대비 수입비중(2006)〉

구분	단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한국
농업	%	4.75	10.18	7.10	6.08	7.55	11.78	4.06	5.26
	순위	42	4	23	30	17	2	51	38
제조업	%	81.30	69.34	72.36	82.73	68.81	64.73	69.73	76.64
	순위	10	43	39	5	47	49	42	23
서비스업	%	13.95	20.47	20.55	11.19	23.64	23.49	27.79	18.10
	순위	42	18	17	50	11	12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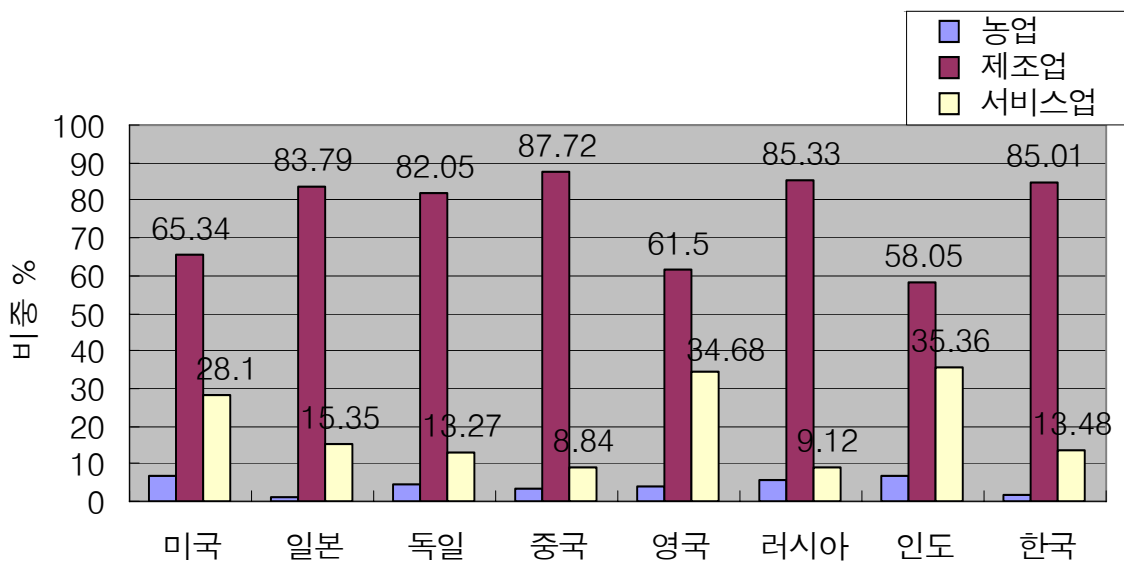
자료 : WTO Statistics database

□ 반면 총수출 중 농업과 서비스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고,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총수출 대비 농업 비중(6.6%)이 일본(0.9%), 한국(1.6%), 중국(3.4%), 영국(3.8%)의 2~7배에 달해 미국 농업의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음.

-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향후 추진가능성이 높은 미일 FTA에서도 농업분야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주요국 산업별 총수출대비 수출비중(2006)〉



자료 : WTO Statistics database

〈주요국 산업별 총수출대비 수출비중(2006)〉

구분	단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러시아	인도	한국
농업	%	6.56	0.85	4.68	3.43	3.82	5.55	6.58	1.61
	순위	28	54	41	46	45	36	27	52
제조업 (Industry)	%	65.34	83.79	82.05	87.72	61.50	85.33	58.05	85.01
	순위	36	8	11	1	43	5	46	6
서비스업	%	28.10	15.35	13.27	8.84	34.68	9.12	35.36	13.48
	순위	15	36	41	52	6	51	5	40

주 : 제조업은 광의의 제조업(Industry) 개념임

자료 : WTO Statistics database

다. 미국의 국별·품목별 수입구조

□ 미국은 고부가가치, 고기술산업 위주로 수출을 특화하고, 저렴한 일반상품 위주로 수입하는 수출입 패턴을 보임.

○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인 항공기 및 우주선 1대 수출가격은 티셔츠 55만 더즌을 수입하는 비용과 같음.

〈미국의 대표 수출입품목 평균 수출입 단가 비교(2006)〉

구분	품목(HS코드)	금액(U\$ 백만)	수량	평균 단가(U\$)
수출	항공기 및 우주선(8802)	45,517	4,035대	11,280,000/대
수입	티셔츠(6109)	4,443	217.8백만 더즌	20.4/더즌

자료 : World Trade Atlas, KOTRA 뉴욕무역관 자체분석

○ 산업 내 교역에서도 고기술, 고부가가치 수출에 특화하는 경향이 강함.

- 초음파 스캐닝 장치 : 평균 수출단가 27,794달러, 수입단가 4,864달러

〈미국의 동일품목에 대한 평균 수출입 단가 비교(2006)〉

품목(HS코드)	평균 수출단가(U\$)	평균 수입단가(U\$)
초음파 스캐닝 장치(901812)	27,794	4,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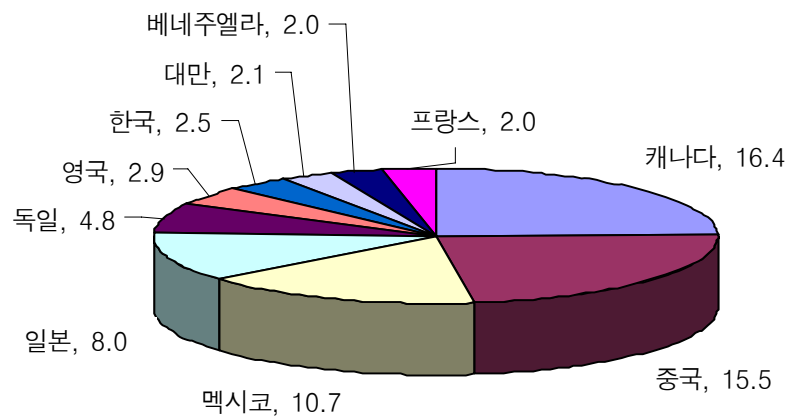
자료 : World Trade Atlas, KOTRA 뉴욕무역관 자체분석

□ 미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은 캐나다로 2006년 기준 미국 총수입의 16.4%를 차지하며, 중국(15.5%), 멕시코(10.7%)가 뒤를 이음.

○ 2007년에는 중국이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미국의 7대 수입대상국(수입시장의 2.5% 점유)

〈주요국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2006)〉



〈미국의 주요국별 수입동향〉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가율 06/05
		2005	2006	2005	2006	
	총계	1,673,455	1,855,119	100	100	10.86
1	캐나다	290,384	303,416	17.35	16.36	4.49
2	중국	243,470	287,773	14.55	15.51	18.2
3	멕시코	170,109	198,259	10.17	10.69	16.55
4	일본	138,004	148,091	8.25	7.98	7.31
5	독일	84,751	89,073	5.06	4.80	5.10
6	영국	51,033	53,437	3.05	2.88	4.71
7	한국	43,781	45,830	2.62	2.47	4.68
8	대만	34,826	38,215	2.08	2.06	9.73
9	베네수엘라	33,978	37,165	2.03	2.00	9.38
10	프랑스	33,842	37,149	2.02	2.00	9.77

자료 : World Trade Atlas 2007

□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등이며, 이들 4대 품목의 수입비중이 총수입의 50%를 상회함.

○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광물성 연료가 미국의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하고, 의류, 신발, 장난감 등 경공업 제품 수입 비중은 지속 하락하고 있음.

- 총수입 대비 광물성 연료 수입 비중 : 13%('90) → 18%('06)

〈미국의 품목별 수입구조 변화〉

순위	품목(HS코드)	1990	2000		2006
		총수입(US\$) (495,260백만)	총수입(US\$) (1,218,022백만)		총수입(US\$) (1,855,119백만)
		비중(%)	비중(%)	순위	비중(%)
1	광물성 연료(27)	13.07	11.13	4	17.98
2	기계류(84)	13.45	14.84	2	13.15
3	전기기기(85)	11.74	15.27	1	12.35
4	차량(철도차량 제외)(87)	14.92	13.44	3	11.61
5	광학기기 및 의료용기기(90)	2.68	3.00	5	2.72
6	귀금속과 이를 입힌 금속(71)	2.35	2.45	9	2.27
7	유기화학품(29)	1.62	2.51	8	2.61
8	의료용품(30)	0.32	1.00	21	2.28
9	가구, 침구, 조명기구 등(94)	1.29	1.96	11	2.15
10	의류(니트류 제외)(62)	2.90	2.69	7	2.04
11	니트류(61)	1.74	2.17	10	1.92
12	플라스틱 제품(39)	1.42	1.57	13	1.85
13	철강(72)	1.60	1.20	18	1.56
14	철강제품(73)	1.33	1.16	19	1.53
15	완구 및 운동용품(95)	1.89	1.58	12	1.40
16	목재와 그 제품(44)	1.20	1.27	15	1.24
17	신발류 및 모자류(64)	1.93	1.22	17	1.03

주 : 순위는 2006년 수입액 기준

자료 : World Trade Atlas 2007

□ 미국의 20대 수입품목 중 중국산이 8개 품목에서 1위, 캐나다가 7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 등에서 상대적 강세를 나타냄.

○ 캐나다는 자동차, 플라스틱, 철강, 목재, 항공 등의 분야에서 1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광학기기, 자동차, 독일은 의약, 유기화학 에서 강세를 보임.

○ 한국은 자동차 5위, 전기기기 6위, 철강 6위 기록

〈미국의 품목별 수입대상국 비교(2006)〉

순위	품목(HS코드)	총계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	
		수입(2006) (US\$ 백만) 비중(%)	순위	비중 (%)	순위	비중 (%)	순위	비중 (%)	순위	비중 (%)	순위	비중 (%)
1	기계류(84)	243,947 13.15	1	25.52	2	13.04	5	7.88	4	8.25	9	3.07
2	전기기기(85)	229,154 12.35	1	21.73	3	9.67	8	2.58	7	4.67	6	5.55
3	차량(철도차량 제외) (87)	215,378 11.61	7	2.38	2	26.80	4	10.87	1	28.48	5	5.04
4	광학기기 및 의료용기기(90)	50,514 2.72	4	9.48	1	13.52	3	13.48	7	4.80	17	1.09
5	귀금속과 이를 입힌 금속(71)	44,049 2.27	6	5.82	23	0.62	14	1.57	5	6.81	30	0.22
6	유기화학품(29)	43,690 2.61	6	5.17	5	6.31	4	6.91	3	7.79	15	1.65
7	의료용품(30)	42,349 2.28	19	0.78	11	3.06	1	14.49	5	8.19	27	0.07
8	가구, 침구, 조명기구 등(94)	39,789 2.15	1	48.65	16	0.77	9	1.25	2	14.51	18	0.42
9	의류(니트류 제외)(62)	37,866 2.04	1	31.32	45	0.11	51	0.09	14	1.69	24	0.72
10	니트류(61)	35,528 1.92	1	22.55	53	0.07	60	0.03	22	1.50	21	1.84
11	플라스틱 제품(39)	34,361 1.85	2	21.23	5	5.49	4	5.54	1	32.40	7	3.21
12	철강(72)	28,877 1.56	4	7.54	8	3.67	9	3.39	1	14.44	6	4.70
13	철강제품(73)	28,427 1.53	1	29.43	4	7.04	6	4.57	2	16.82	7	4.19
14	완구 및 운동용품(95)	25,888 1.40	1	80.70	2	4.06	10	0.57	5	1.88	8	0.78
15	목재와 그 제품(44)	22,922 1.24	2	13.08	48	0.05	5	2.83	1	55.12	57	0.02
16	신발류 및 모자류(64)	19,162 1.03	1	72.49	46	0.01	15	0.32	12	0.41	20	0.14
17	알루미늄(76)	18,972 1.02	3	8.49	11	1.28	4	4.22	1	48.96	21	0.56
18	종이제품(48)	18,789 1.01	2	9.92	6	2.87	4	4.74	1	55.55	7	2.50
19	항공기 및 우주선(88)	17,592 0.95	14	5.66	3	8.27	4	7.72	1	28.89	9	1.14

주 : 20대 수입품목 중 최대 품목 광물성 연료 등 제외

자료 : World Trade Atlas 2007

□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대미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중국의 노동집약형 상품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이를 자본·기술집약형 상품이 대체하고 있음.

○ 신발 73%, 가구 49%, 우븐 의류 31%가 중국산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기계류 비중이 높아짐.

- 신발 : 9.7%('90) → 4.8%('06), 우븐 의류 : 13.9%('90) → 2.91%('06)

- 전기기기 : 12.7%('90) → 22.6%('06), 기계류 : 3.1%('90) → 21.6%('06)

○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입시장 점유율 또한 급증하고 있음.

- 수입대상국 순위 : 10위('90) → 5위('00) → 2위('06) → 1위('07년 전망)

- 수입시장 점유율 : 3.1%('90) → 9.0%('00) → 15.5%('06)

〈중국의 대미 수출동향〉

(단위 : US\$ 백만)

구분	1990	1995	2000	2006
중국의 대미수출액	25,728	36,844	102,278	287,772
미국의 수입대상국 순위	10	6	5	2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07	4.96	8.96	15.51

〈중국의 주요 품목별 대미 수출비중 변화〉

(단위 : %)

순위	품목(HS코드)	1990	1995	2000	2006
1	전기기기(85)	12.65	17.33	19.53	22.55
2	기계류(84)	3.10	7.95	13.40	21.64
3	완구 및 운동용품(95)	14.05	13.65	12.38	7.26
4	가구, 침구, 조명기구 등(94)	1.81	4.35	7.20	6.73
5	신발류 및 모자류(64)	9.71	12.78	9.18	4.83
6	철강제품(73)	1.47	1.22	1.88	4.12
7	의류(니트류 제외)(62)	13.87	7.20	4.17	2.91
8	니트류(61)	7.14	3.02	2.03	2.78
9	플라스틱 제품(39)	2.54	3.56	2.91	2.59
10	가죽제품(42)	5.74	5.57	3.83	2.38
11	차량(철도차량 제외)(87)	0.44	1.10	1.96	1.78

자료 : World Trade Atlas 2007

라. 미국의 교역추이

□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40%가 중국,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함.

○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한국 등 아시아 4개국 포함시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이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

- 미국 무역적자 규모 : 6,509억 달러('04) → 7,675억 달러('05) → 8,180억 달러('06)

- 무역적자 비중 : 중국 28.4%, 일본 10.8%, 말레이시아 2.9%, 대만 1.9%, 태국 1.8%, 한국 1.6%

※ 대중국 무역적자 심화는 중국산 제품의 안정성 문제와 맞물려 미국의 중국산 애완동물 사료, 치약, 장난감, 타이어, 양식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및 리콜조치로 나타남.

〈미국의 주요국별 무역적자 규모〉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명	2004	2005	2006	
		금액	금액	금액	비중
	전체	-650,930	-767,477	-817,976	100.0
1	중국	-161,938	-201,545	-232,549	28.4
2	일본	-75,562	-82,519	-88,442	10.8
3	캐나다	-66,480	-78,486	-73,159	8.9
4	멕시코	-45,067	-49,744	-64,092	7.8
5	독일	-45,850	-50,567	-47,753	5.8
6	베네수엘라	-20,153	-27,557	-28,153	3.4
7	나이지리아	-14,694	-22,618	-25,686	3.1
8	말레이시아	-17,258	-23,224	-23,982	2.9
9	사우디	-15,702	-20,380	-23,881	2.9
10	아일랜드	-19,281	-19,397	-20,125	2.5
11	이탈리아	-17,413	-19,485	-20,086	2.5
12	대만	-12,879	-12,757	-15,191	1.9
13	러시아	-8,930	-11,344	-15,066	1.8
14	알제리	-6,438	-9,279	-14,391	1.8
15	태국	-11,211	-12,633	-14,319	1.8
16	한국	-19,755	-16,016	-13,374	1.6
17	프랑스	-10,342	-11,432	-12,931	1.6
18	인도	-9,463	-10,815	-11,735	1.4

자료 : World Trade Atlas 2007

□ 품목별로는 미국의 총 98개 교역품목(HS코드 2단위) 중 흑자품목이 16개, 적자품목이 82개를 기록함.

○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이 광물성 연료와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하며, 항공기 및 우주선, 광학기기 및 의료용기기는 대표적인 흑자품목임.

- 무역적자 비중 : 광물성 연료 37%, 차량(철도차량 제외) 15%

- 무역흑자 규모 : 항공기 및 우주선 491억 달러, 광학기기 및 의료용기기 114억 달러

〈미국의 품목별 무역수지 현황(2006)〉

주요 적자품목		주요 흑자품목	
품목명(HS코드)	금액(US\$ 백만)	품목명(HS코드)	금액(US\$ 백만)
광물성 연료(27)	-298,638	항공기 및 우주선(88)	49,161
차량(철도차량 제외)(87)	-122,676	광학기기 및 의료용기기(90)	11,377
전기기기(85)	-83,322	플라스틱 제품(39)	8,351
기계류(84)	-61,913	화학공업 생산품(38)	8,059
의류(니트류 제외)(62)	-36,130	종자 및 과실류(12)	7,976
니트류(61)	-33,019	식품공업 잔유물 및 조제사료(23)	3,276
가구, 침구, 조명기구 등(94)	-32,230	염료, 안료, 페인트 등(32)	2,462
완구 및 운동용품(95)	-20,363	광, 슬랙 등(26)	2,108
신발류 및 모자류(64)	-18,332	식용육(02)	2,099
의료용품(30)	-17,113	원피와 가죽(41)	2,018
목재와 그 제품(44)	-16,385	담배(24)	1,195
철강(72)	-16,256	선박 및 수상구조물(89)	1,145
철강제품(73)	-14,937	무기류(93)	1,122
음료 및 주류(22)	-13,491	조제식료품(21)	1,592
귀금속과 이를 입힌 금속(71)	-12,498	동물성 생산품(05)	79

자료 : World Trade Atlas 2007

III. 숫자로 보는 미국 투자동향

가. 해외직접투자 개관

□ 미국은 세계 제1의 해외직접투자국인 동시에 세계 제1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임.

○ 미국의 연평균 해외직접투자('04년 2,224억 달러) 규모는 연평균 1,2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이는 일본의 4배, 독일의 5배, 한국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05년 영국의 대규모 M&A에 따른 예외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은 부동의 세계 1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임.

- 2005년에는 994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여 영국(1,645억 달러)에 이어 2위 차지

- 중국이 791억 달러 FDI 유치로 세계 3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에 오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Outward, Inward) 동향(2005)〉

구분	단위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중국	한국
해외직접투자('04) (FDI Outward)	US\$ 십억	222.4	53.23	133.60	119.45	101.10	45.63	11.31	7.13
	순위	1	5	2	3	4	6	16	22
외국인직접투자 (FDI Inward)	US\$ 십억	99.44	-6.68	70.69	43.63	164.53	32.66	79.13	3.65
	순위	2	52	4	6	1	8	3	41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7(IMD)

나.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2조 700억 달러('05)에 달하며, 최근 5년간 6,000억 달러 증가

○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의 연평균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200억 달러를 상회함.

- 636억 달러(1990년대 전반) → 1,260억 달러(2000년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단위 : US\$ 백만)

대상지역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세계	1,460,352	1,616,548	1,769,613	2,051,204	2,069,983

주 : 연도말 취득원가(Historical Cost) 누계기준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지역별로는 유럽이 미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이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투자가 70% 이상을 차지함.

○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은 유럽('05년 누계기준 51.2%), 아시아·태평양(18.2%), 중남미(17.1%) 순이며, 국별로는 캐나다와 영국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가의 30%를 차지함.

- 한국은 미국의 13번째 직접투자 대상국이며, 일본이 8위, 중국이 14위 차지

〈미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누계〉

(단위 : US\$ 백만,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금액	비중
총계	1,460,352	1,616,548	1,769,613	2,051,204	2,069,983	100.0
유럽	771,936	859,378	976,889	1,104,886	1,059,443	51.2
아시아·태평양	227,418	270,086	270,830	362,833	376,849	18.2
중남미	279,611	289,413	297,222	330,468	353,011	17.1
북미(캐나다)	152,601	166,473	187,953	212,829	234,831	11.3
아프리카	15,574	16,040	19,835	21,414	24,257	1.2
중동	13,212	15,158	16,885	18,775	21,591	1.0

주 : 연도말 취득원가(Historical Cost) 누계기준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의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2005	'01~'05 평균	비중
	총계	124,873	134,946	129,352	222,437	-12,714	119,779	100.0
1	캐나다	16,841	15,003	17,340	23,255	16,789	17,846	14.9
2	영국	7,890	15,265	26,738	26,604	10,873	17,474	14.6
3	멕시코	14,226	7,656	3,664	6,361	6,771	7,736	6.5
4	독일	11,823	2,416	4,376	8,960	7,140	6,943	5.8
5	룩셈부르크	20,402	10,485	8,080	7,074	-16,669	5,874	4.9
6	네덜란드	12,025	14,790	15,502	13,810	-28,503	5,525	4.6
7	스위스	4,170	7,924	14,462	9,281	-11,821	4,803	4.0
8	일본	-4,731	8,711	867	9,198	7,636	4,336	3.6
9	아일랜드	2,437	10,700	7,408	3,991	-3,025	4,302	3.6
10	프랑스	476	4,604	1,074	8,385	859	3,080	2.6
13	한국	1,206	1,681	1,231	3,792	1,687	1,919	1.6
14	중국	1,912	875	1,273	3,670	1,613	1,869	1.6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주 : Capital Outflows Without Current-Cost Adjustment 기준임.

○ 미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는 서비스업(72.7%), 제조업(21.8%), 광업(5.5%) 순이며, 제조업 내에서는 화학, 컴퓨터/전자, 수송장비가 최대 투자분야임.

- 서비스업 중에서도 지주회사(비금융)(30.1%), 금융보험(19%), 은행(3.4%) 등 절반이 금융 또는 지주회사 투자임.

〈미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계(2005)〉

(단위 : US\$ 백만, %)

총계	광업	도매	정보	은행	금융보험	전문기술 서비스	지주회사 (비금융)	기타
2,069,983	114,386	142,960	55,479	70,331	393,723	49,202	623,076	169,424
100.0	5.5	6.9	2.7	3.4	19.0	2.4	30.1	8.2
제조업								
제조업 소계	식품	화학	금속	기계류	컴퓨터 전자	전기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
451,402	31,524	109,354	21,671	29,224	58,785	13,079	48,930	138,836
21.8	1.5	5.3	1.0	1.4	2.8	0.6	2.4	6.7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미국기업은 총자산 8조 7,570억 달러, 연간 순투자소득 2,278억 달러, 연간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익 360억 달러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됨.

○ 해외에 직접 투자한 미국기업의 총자산('04)은 미국 GDP의 70% 수준에 이르며,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등 3개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의 순소득이 미국의 해외투자기업 전체 순소득의 30%를 차지함.

- 한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은 26억 달러의 순투자소득 실현

〈미국 해외직접투자 기업 총자산〉

(단위 : US\$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총자산(Total Asset)	5,884,388	6,802,399	7,946,240	8,757,063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 해외직접투자기업 순투자소득〉

(단위 : US\$ 백만)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순투자소득(Net Income)	133,692	110,029	124,940	165,203	203,484	227,864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 해외직접투자기업 국별 순투자소득〉

(단위 : US\$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금액	비중
총계	110,029	124,940	165,203	203,484	227,864	100.0
캐나다	11,836	13,297	15,826	21,979	22,259	9.8
네덜란드	10,922	11,756	16,595	18,548	20,383	8.9
영국	9,612	11,043	13,829	16,601	19,924	8.7
스위스	6,636	10,921	12,643	12,613	11,636	5.1
일본	4,892	7,146	8,103	9,998	11,205	4.9
싱가폴	3,334	4,438	5,987	8,089	10,726	4.7
한국	1,114	1,455	1,486	1,901	2,613	1.1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연간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익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거둬들인 금액은 4억 달러에 달함('05).

- 연간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익 : 258억 달러('01) → 307억 달러('03) → 360억 달러('05)

〈미국 해외직접투자기업 국별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익〉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2005	
						금액	비중
	총계	25,822	28,174	30,710	33,644	36,044	100.0
1	아일랜드	3,420	3,809	4,245	4,316	4,374	12.1
2	일본	2,707	2,886	3,079	3,448	3,663	10.2
3	캐나다	2,105	2,338	2,659	3,011	3,556	9.9
4	영국	2,243	2,342	2,782	3,289	3,365	9.3
5	스위스	931	1,495	2,013	2,240	2,455	6.8
6	싱가포르	2,441	2,335	2,230	2,212	2,270	6.3
7	독일	1,520	1,630	1,908	2,022	2,047	5.7
8	프랑스	1,360	1,442	1,603	1,827	1,901	5.3
19	한국	212	252	281	325	401	1.1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다.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누계액은 1조 6,353억 달러('05)에 달하며, 최근 15년간 4배로 성장함.

○ 미국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지속 증가 추세

- 누계액 기준 4,191억 달러('90) → 1조 6,353억 달러('05)

- 연도별로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 정체기를 거쳐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음.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누계〉

(단위 : US\$ 백만)

구분	1990	1995	2000	2005
FDI(Inward)	419,108	535,553	1,256,867	1,635,291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연도별 실적〉

(단위 : US\$ 백만)

구분	1990	1997	2001	2002	2003	2004	2005
FDI(Inward)	48,422	103,398	159,461	74,457	53,146	122,377	99,443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영국,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직접투자한 국가이며, 한국은 27위 기록

- 영국(2,825억 달러)과 일본(1,903억 달러)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누계액의 30% 차지('05)
- 영국은 보험, 예금 등 금융분야 위주로, 일본은 자동차 및 부동산 위주로 투자
- 중국의 투자금액은 4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임.

〈주요국별 대미 직접투자동향〉

(단위 : US\$ 백만)

순위	국별	2005년말 투자 누계	비중(%)
	총계	1,635,291	100.0
1	영국	282,457	17.3
2	일본	190,279	11.6
3	독일	184,213	11.3
4	네덜란드	170,770	10.4
5	캐나다	144,033	8.8
6	프랑스	143,378	8.8
27	한국	6,203	0.4
32	홍콩	2,600	0.2
45	중국	481	0.03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매업, 금융·보험업 등이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 대상 분야이며, 제조업 중에는 화학, 수송장비, 기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업(32.9%), 도매업(14.1%), 금융·보험업(12.7%) 등 3개 분야가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금액('05)의 60% 가량을 차지함.

〈미국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2005)〉

(단위 : US\$ 백만)

총계	도매	소매	정보	은행	금융보험	부동산 리스	전문기술 서비스	기타
1,635,291	230,104	29,686	142,556	130,940	207,552	41,006	41,879	273,444
100.0	14.1	1.8	8.7	8.0	12.7	2.5	2.6	16.7
제조업								
제조업 소계	식품	화학	금속	기계류	컴퓨터 전자	전기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
538,122	19,779	151,624	28,651	48,673	47,016	14,191	76,036	152,152
32.9	1.2	9.3	1.8	3.0	2.9	0.9	4.6	9.3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7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세계 바이오에너지 개발동향	2007.2
07-002	일본 히트 상품 속에 숨은 키워드	2007.2
07-003	2010, 중국 비즈니스 이정표 : 3가지 의문과 제안	2007.2
07-004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법규와 시사점	2007.2
07-005	대미수출 부진원인과 한미FTA 활용 방안	2007.3
07-006	중남미 신정부 출범과 시장 진출 방안	2007.3
07-007	북핵 사태 해결 이후 북-EU 경제 관계의 향방	2007.3
07-008	일본의 지적재산 강화전략 및 시사점	2007.3
07-009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07.3
07-010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미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7.4
07-011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2007.4
07-012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2007.4
07-113	멕시코 수출. 산업 진흥제도(IMMEX/PROSEC)의 이해	2007.4
07-014	EU 가입 3주년, 신규 회원국들의 경제변화 추이	2007.4
07-015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2007.5
07-016	발칸국의 투자진출 여건 분석	2007.5
07-017	러시아 오일머니, 어디로 가고 있나	2007.5
07-018	WTO 가입 후 베트남 섬유산업 환경변화 및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2007.6
07-019	대중수출 품목구조 변화와 주요 요인	2007.6
07-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7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7.6
07-021	인도 소매유통시장 현황과 전망	2007.6
07-022	북중변경무역현황과 전망	2007.6
07-023	M&A를 통한 중국 진출 전략	2007.6
07-024	미래를 위한 준비, 중동의 탈석유화 정책	2007.6
07-025	중국 증치세 환급률 인하의 영향과 전망	2007.7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7.1
07-002	2007 미리보기	2007.1
07-003	2006년 중국 지재권 백서	2007.2
07-004	2006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 결과보고서	2007.6
07-005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7.6
07-006	유럽 완성차 기업의 미래형 자동차 개발현황 및 Tier1.2 동향 조사	2007.6
07-007	브라질 비즈니스 가이드	2007.6
07-008	중국투자실무가이드/증보판	2007.7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세계시장 진출전략설명회	2007.1
07-002	Post-China 투자진출 전략 설명회	2007.3
07-003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7.4
07-004	발칸국 투자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2007.5
07-005	중국 투자환경 이렇게 바뀐다!!!	2007.5
07-006	한미 FTA 활용, 산업별 대미진출전략 설명회	2007.6

작성자

- ◆ 뉴욕무역관 김문영 차장(mykim_3@kotra.or.kr)
- ◆ 구미팀 김준규 과장(jkkim1204@kotra.or.kr)

Global Business Report 07-026

숫자로 보는 미국경제 현주소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7년 7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엽곡동 300-9
|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